

# “판타지 요소 가미해 희망 주고 싶었죠”

## 화순 출신 배다인 작가 동화 ‘도깨비도 연습이 필요해’ 도깨비 양면적 이미지 창작 활용...무한한 가능성 담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삶은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어요. 특히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즉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삶을 개척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보았지요.”

다들 세상살이가 팍팍하다고 한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난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삶이 어려워지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과 아동들이다. 특히 티 없이 자라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크다

화순 출신 배다인 동화작가가 장편 동화 ‘도깨비도 연습이 필요해’ (소년 한길)를 펴냈다.

제목부터 이색적인 작품은 지금껏 전통 설화나 민담 속에서 봐왔던 ‘만능 도깨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도깨비는 권선징악의 모습으로 그려져 온 게 일반적이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는 이미지였다.

출간 소식을 전하는 배 작가는 “도깨비의 양면적 이미지를 창작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깨비도 어린이와 똑같이 성장하는 존재라는 상징성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동화를 쓰는 작가가 아니면 떠올릴 수 없는 재미난 상상이다. 아마도 작가는 한동안 도깨비를 머릿속에 품고 살았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배 작가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틈틈이 동화를 쓴다. 연구 논문을 쓰고 학생을 지도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주부도 아내로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았을 터다.

“단편 동화는 순발력을 필요로 하지만 장편 동화는 서사가 긴 만큼 균형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요. 물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랍니다. 행복은

순간이고 차츰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독자들과의 반응은 어떨까? 작품집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지 등등 마치 ‘어린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이 들지요.”

배 작가는 이번 동화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사실 동화의 본령은 환상성에 있다. 배 작가의 첫 창작집 ‘은골무’에도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 그는 “판타지적인 요소는 기존에 발표했던 사실 동화 작품들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의 행동에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요소를 풍요롭게 부여할 수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작품 ‘도깨비도 연습이 필요해’는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마법을 펼치는 도깨비도 무엇이든 잘 해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은 호기심을 유발한다. “마법을 펼치는 도깨비든 예외는 없다”는 견해는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아울러 상상의 나라를 선사한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꿈이 많은 수현이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도깨비 고개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상한 할머니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를 불러내는 주문을 알려준다. 어느 캄캄한 밤 수현이는 도깨비를 불러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꼬마 도깨비는 수현이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들어주기 어렵다고 거절한다. 대신 연습을 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도깨비 자신도 소원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 언제고 훌륭한 도깨비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

작품은 환상적인 요소 속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정말로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어린이들이 독서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저자는 동화를 쓸 때 “어린이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동화는 인간 본성과 세상의 진술함을 보여주는 장르이기에 창작과 아울러 폭넓은 탐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동화를 쓰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도 겸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자신을 낮췄다.

작가는 당분간은 대학 강의와 창작 활동에 매진할 생각이다. 물론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5·18을 소재로 한 어린이 극본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배 작가는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제14회 한국문학 백년상 아동 부문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난 나쁜 친구야’, ‘파도 너머 푸른 꿈’ 등의 작품집과 문학저서로 ‘동화의 재구성 능력계발’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전라도길에서 만난 ‘진짜 마을이야기’

## 화순군 문화재위원 심홍섭 씨 ‘산골 이야기’ 13일 출판회

전라도 길 위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늘 따뜻했다. 끼니 때면 허물없이 불러들여 밥상 한 자리에 앉혀 놓고 수저를 쥐어줬다. “한번 잡사 밥”하며 믹스 커피를 내주고, “물찌지만 맛나, 가져가서 잡사”하며 감과 고구마 줄기를 쟁겨주곤 했다. 날이 저물면 밤길 걱정에 자고 가라는 말을 건네는 이도 많았다.

무엇보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진짜 마을 이야기’였다. 그 곳에 뿌리 박고 살아온 이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에 그는 마음을 빼앗겼고 성실히 기록했고, 사진으로 남겼다.

화순군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심홍섭씨가 펴낸 ‘산골 이야기’ (상상창작소 펴냄)는 그가 수년간 발품을 팔아 적어 내려간 전라도 마을 사람들의 개인사(史)이자 마을사(史)다. 그의 성실한 취재 덕분에 어찌보면 사라질지도 모를 이야기들은 ‘기록’으로 남게됐고,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때의 어른들과, 그 시절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됐다.

책은 ‘꽃 피는 마을’, ‘산골에서 부르는 노래’, ‘사람 냄새나는 아름다운 마을들’, ‘항상 사람이 그리운 곳’ 4개 챕터로 나눠 산골 마을 이야기를 들려준다.

고흥 금계마을에서 시작한 여정은 곡성 가곡마을, 고창 반암마을, 함평 기동마을, 광양 신담마을, 김제 옹화마을, 해남 송정마을, 무주 봉길마을, 완주 오성마을, 무안 배미마을 등 광주·전남북을 아우르는 전라도 25개 마을로 이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죽어 품 덕에 도라꾸로 돈 신고 다녔던” 영화로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산강 하구둑 들어선 뒤로 그 맛하던 송어맛을 못본다”며 아쉬워한다. 또 배우자와의 만남을 수줍게 이야기하고, 자식 사랑을 하며

즐거워한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문화재 전문위원답게 각 마을의 의미있는 장소와 역사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날 것 그대로의 마을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은 생생함을 더한다.

저자는 “삶의 터전을 산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이 자연을 거역하지 않는 진솔한 삶의 표본이었다”며 “도시화에 과정에서 소멸되고, 빈집은 늘어가지만 그들은 춘삼월이 되면 새싹을 틔우는 새순처럼 땅을 파고 거름을 내놓으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책은 월간 ‘전라도 닷컴’에 10여년간 연재한 글들을 엮었다. 심 전문위원은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됐으며 ‘화순의 자랑거리’, ‘화순의 누정 기행’, ‘화순의 마을과 사람들’ 등을 펴냈다.

13일 오후 7시 커피홀 베이커리(화순군 학포로 2735-1)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대토론회 14일 ACC 국제회의실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모토는 무엇일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래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당 개관 7주년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해 시민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환경·사회·경제 가치의 조화”를 주제로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시

민대토론회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김병완 회장(광주대학교수)이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국내외 사례’ (김진애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샛포로’ (민진경 북해도교육대학교수), ‘지속가능성 관점의 광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주명옥 광주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팀장)가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토론회는 김기곤 광주총괄지원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을 비롯해 김지원 부부장(광주문화

재단), 윤의 미술문화기획자, 정인서 원장(서구문화원)이 참여한다.

2부 라운드테이블은 ‘민·관·정 협업체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관정 기관대표인 김광진 시 문화경제부시장, 지원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직지원포럼 회장, 이강현 아시아문화전당장, 황광년 광주문화재단 대표, 박종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직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대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뉴진스 ‘쿠키’, NYT 선정 ‘베스트송’...K팝 유일

걸그룹 뉴진스(사진)의 데뷔곡 ‘쿠키’ (Cookie)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뽑은 올해 최고의 노래 가운데 하나에 올랐다.

NYT는 7일(현지시간) ‘2022 베스트 송’ 기사를 통해 3명의 대중음악 평론가가 각각 뽑은 올해 최고의 노래 중 70곡을 공개했다.

‘쿠키’는 존 캐러머니가 평론가가 뽑은 22곡 가운데 11위에 올라 K팝 노래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캐러머니는 ‘쿠키’에 대해 “인상적인 영(young) K팝 걸그룹 뉴진스의 데뷔 미니음반에 담긴 최고의 노래”라며 “과하지 않은 편안함이 두드러지는 곡”이라고 평가했다.

뉴진스는 올해 데뷔 미니음반으로 음반·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가요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들은 다음 달 새로운 싱글 ‘OMG’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대인시장, 한화생명, KT, (구)청자다방, 광주빌딩, KT, 광주빌딩

대중병원 (구)김병원, 추선회관, 광주중앙초등학교

세종약기, 예술의거리, 주차장 입구

음식의 거리, 동양저축은행

금호시민문화관, 원각사, SK브로드밴드, 지하철 ④번 출구, 금남로공원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5층 MG문화센터

##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